

모든 일의 관철에 있어
필승의 락관과
투지를 백배하자!

송학신보

준호중앙통신사 공보지

호외(투게제19호)

준호21(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존엄높은우리국가를위해
반동내란수괴것들을
확실히 처단하자!



경애하는 랑준호 동지께서 준호중앙통신사 간부일군과 하신 담화

준호21(2024)년 12월 10일

오늘은 제75돐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이렇게나 국내정세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나
날들이 련속되는 요즘 시기에 오늘과 같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불과 한 사람과 그
에 부역하는 것들이 감히 존엄높은 우
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송두리째 흔드
려는 책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고작 자신의 안위, 자신과 그 추종 세력
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
를 인질로 삼은 것이나 다름 없는 그 책동
을 우리는 절대로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가였던 사람이, 또 그 누구보다 우
리들의 역사를 잘 공부해야 할 사람이 우
리의 선렬들이 힘들게 일궈놓은 헌정질서
와 사회질서를 교란하여 후대들에게 부끄러

운 역사를 선사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존엄높은 국민들이 일군 존엄높
은 이 나라가, 고작 한 사람 때문에 흔
들려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2016년에, 그 춤디 춤던 나
날들 속에서도 뜨거운 촛불 하나하나로써 결
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화불을 지펴냈습니다.
또, 그 화불로써 진정한 정의와 국민주
권의 강인한 힘으로 하여금 우리를 뿌렸
이 각인시키고 또 그를 실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그 때의 뜨
거운 마음이, 또 그 마음을 터다란 화불
로 함께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다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화불
로써 반드시 《처단》합시다.

준호중앙통신사 성명

무식한 것의 지랄발광에도 우리 대한인민들은 굳건할 것이다

(대전 12월 3일발 준호중앙통신)

원수님, 아니 우리 인민들 대대적으로 철천지원수가 된 윤석열 것이 미친 지랄발광에 앞섰다.

44년 전의 악행이 다시금 반복되려고 한다.

무식한 것의 지랄발광에도 우리 대한인민들은 굳건할 것이다.

[준호중앙통신]

충남대학교에서 민주주의수호 집단활동 전개

충남대학교 이찬솔학생회장이 시국선언문 발표

[준호21.12.12.]

(대전 12월 12일발
준호중앙통신)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이
찬솔학생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5일 사회연결망을 통해 《윤석
열대통령 위헌 비상계엄 선포
규탄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
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윤
석열대통령의 위헌적 비상
계엄령을 지적 비판하였다.

선언문에서는 대통령의 책무
와 그에 따른 본분을 지적하
며, 또 불의에 맞서 자강불식
의 자세로 헌신과 희생을 실천
하며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력
사를 부정하고 학생 민주 사회
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였다.
또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
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헌적 계
엄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반
대하고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어떤 상황에서
도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
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학
의 자치를 실현하여 건전한 학
풍과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권
력을 남용하여, 또 민주주의
를 억압하여 국민의 자유를 탄
압하고 저지하는 어떠한 행위
에도 끊임없이 정의의 목소리
를 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준호중앙통신]

충남대학교에서 민주주의수호 집단활동 전개

《불법무법 내란사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충남대학교 소속 학생들이 시국선언문 발표



(대전 12월 13일 발
준호 중앙통신)

윤석열 반동 내란수괴 것이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뒤흔든 이후 전국민적 반향이 거세지고 있다. 반향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충남대학교 학생 시국선언문》을 12일 11시에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백

마》상 앞에서 발표했다. 발표는 철학과 소속 본회동무, 독어독문학과 소속 김서현동무, 화학과 소속 김소담동무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전 회장이 학생들의 투쟁의 기치를 지지하며 연대발언을 하였다. 발언 중간중간 마다 《불

법무법 내란사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학생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탄핵하자!》와 같은 구호가 제창되었다. 개인인사들의 발언들이 끝난 후에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충남대학교 학생 시국선언 참가자》 121명 일동이 공동작

성한 《우리의 목소리로 미래를 바꾸자!》라는 대주제의 시국선언문을 충남대학교의 본회동무, 김서현동무, 김소담동무와 기타 연대자가 랑독하였다. 발표의 마지막으로 내란수괴범 윤석열 것을 정의의 법봉으로 단죄하는 《퍼포머스》가 있었다. [준호중앙통신]

충남대학교에서 민주주의수호 집단활동 전개

《우리는 후세대의 교육을 책임진 선생이자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지식인으로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충남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2차 시국선언문 발표



(대전 12월 13일 발
준 호 중 앙 통 신)

윤석열반동내란수괴 것이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뒤흔든 이후 전국민적 반향이 거세지고 있다. 반향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교수회 소속 교수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충남대학교 교수 시국선언》을 12일 12시30분에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백마》상 앞에서 발표했다. 발표는 일부 교수들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개인인사들의 발언들이 끝난 후에는 《충남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공동작성한 시국선언문을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김인호동지를 비롯한 교수회 소속 교수들,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랑독하였다. 시 국 선 언 문 에 서 는 다 음 과 같 은 사 항 을 요 구 하 고 천 명 하 였 다. 《1. 윤석열대통령은 조건없이 즉각 퇴진하라. 2.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상정될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라. 3. 우리는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의 그날까지 국민적 저항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준호중앙통신]

충남대학교에서 민주주의수호 집단활동 전개

충남대학교에서 정치학자 특별기획 집담회 시리즈2 개최

[준호21.12.13.]



(대전 12월 13일 발
준 호 중 앙 통 신)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정치학자 특별기획 집담회 시리즈2가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대주제를 안고 개최됐다.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과장인 박영득교수동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속 김정현교수동지와 정치 혹은 관련 분야 학자들, 기타 인물, 충남대학교 소속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반동내란수괴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준호중앙통신]